

이규복 “2030년까지 9조 이상 투자… 목표매출 40조+α”

(현대글로비스 대표)

현대글로비스 CEO 인베스터 데이
중장기 전략, 주주환원 정책 제시
선박 등 핵심 자산 최대규모 투자
“인수합병 방식 성장도 적극 검토”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글로비스가 2030년까지 향후 6년간 9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이를 통해 매출액 40조원 이상, 영업이익 3조원(영업이익률 7%) 수준 등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신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현대글로비스의 2030년 목표 매출은 '40조원+α'로 영업이익 3조원, 영업이익률 7% 수준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물류 사업(36%), 해운(30%), 유통(11%), 신사업(23%) 등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현대글로비스

는 창사 이래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이루겠다는 포부다. 연평균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지난 5년 연평균 투자액(4000억원)과 비교보다 3배 이상 높다.

중장기 외형성장을 위해 기존 사업의 확장, 비계열 매출 적극 확대, 신사업 전개 등 3가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물류 인프라·선박 등 핵심 자산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실행

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스마트 물류 솔루션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을 키운다. 특히 계열 매출뿐만 아니라 비계열 매출을 50% 이상으로 늘려 성장세를 더 키우기로 했다.

물류의 경우 해외물류 사업에서 공격적으로 비계열 영업에 나선다. 이로써 글로벌 포워딩 부문 사업 내 현재 20%의 비계열 매출 비중을 2030년에는

60%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다.

해운은 글로벌 토퍼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끈다. 자동차선 사업의 경우 비계열 고객을 늘려 2030년 그 매출비중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벌크선에선 액화천연가스·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 해상운송을 통해 매출 증대를 이룬다.

유통 사업은 KD사업 신규 수주를 늘리고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회수와 재활용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사업에서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강화,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사업 본격화 등 신사업도 시작해 수익 증가를 이뤄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물류 허브 거점 투자, 초대형 선박 투자와 함께 나아가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이 공격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연 평균 1조3000억원 가량의 핵심 자산 투자로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인수합병 방식의 성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향후 3개년 간 신규 배당정책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배당이 기존 ‘전년도 주당배당금(DPS)의 5~50% 상향’에서 ‘전년 대비 배당금 최소 5% 상향&배당성향 최소 25% 이상’으로 신규 변경된다. 배당성향 최소치인 25%를 가정해도 2027년 주당배당금이 2023년(6300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1대1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 주식 수량도 3750만주에서 7500만주로 늘린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7월15일이고 신주는 8월2일 상장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주식 수량이 많아지면서 주당 가격이 지금보다 2분의 1로 낮아져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주식 거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간담회

“그랑 콜레오스, 르노 DNA 바탕 한국 고객 최적화”

네이버·티맵 등 국내 기업 협업
부산공장 생산 노하우 어우러져



지난달 27일 '2024 부산모빌리티쇼'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르노코리아 전시장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랑스 디자인에 한국 감성을 더했습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르노코리아의 친환경차 개발 프로젝트 오로라의 첫 번째 모델 D 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을 비롯한 전체적인 개발 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27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그랑 콜레오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가 미래 혁신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이자 르노의 플래그십 SUV이다. 벡스코 르노코리아 전시장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드블레즈 사장을 만나 그랑 콜레오스의 탄생과 르노코리아의 향후 전략을

들어봤다. 엔지니어 출신인 드블레즈 사장은 프랑스 르노그룹과 중국 길리그룹의 '오로라' 프로젝트를 이끈 인물이다.

드블레즈 사장은 “한국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차량을 제작했다”며 “현재 동급에서 가장 강력한 전동화 하이브

리드 엔진을 탑재했으며 2열과 적재공간 등 공간 효율성 확대와 인포테인먼트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드블레즈 사장의 설명에 걸맞게 탑승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최신 엔진 탑재로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다. 우선 4780mm의 차체 길이에 2820mm의 동급 최대 휠베이스로 설계했으며 320mm의 무릎 공간을 확보했다. 트렁크의 경우 뒷좌석 폴딩 시 최대 2034L(가솔린 모델 기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워트레인은 새로운 버전의 E-Tech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다. 이는 1.64kWh 용량의 배터리에 하이브리드 전용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멀티모드 오토 변속기를 결합한 르노의 최신 파워트레인이다. 시스템 최고출력은 245마력으로 고성능 주행이 가능하며 상시 전기모드로 시동을 걸고 출발할 수 있도

록 했다. 드블레즈 사장은 “소비자들의 일상 운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속 40km 이하 도심 구간에서는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도 눈길을 끈다. 드블레즈 사장은 “TMAP(티맵) 네비게이션과 네이버와 손잡고 최적화된 차량용 브라우저 등을 탑재했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 3개 스크린을 장착했는데 2개는 운전자용 1개는 동승자용이다”고 말했다.

드블레즈 사장은 “그랑 콜레오스는 ‘매일을 함께하는 차’라는 르노의 DNA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글로벌 협력, 국내 연구진들의 휴먼 퍼스트 기술 구현을 위한 열정, 부산공장 및 협력업체들의 뛰어난 생산 노하우와 품질 경쟁력이 어우러져 탄생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부산=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체험 이벤트

삼성전자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 CGV 씨네드쉐프에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와 디즈니·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함께한 특별 체험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영화 개봉에 앞선 지난달 20일 인사이드 아웃 2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영화 주인공인 ‘다일리’가 야외활동으로 더러워진 옷을 빨래하면서 겪는 다양한 감정의 해결사로 비스포크 AI 콤보가 등장한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올인원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세탁물 이동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맞춤 코스 등 다양한 AI 기능으로 편리한 세탁·건조 경험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제주항공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제주항공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자사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항공은 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보고 가이드라인,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산업 표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 내용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를 준수해 작성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주주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해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박대성 수석기자 iunmnds@

LG디스플레이, 용수 재이용률 74% 달성

‘2024 ESG 리포트’ 발간

LG디스플레이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폐수 재이용 효율 개선 등 친환경 활동을 담은 '2024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 특히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업계 최상위 수준의 용수 재이용률(74%)을 달성했다.

LG디스플레이는 친환경 기술 혁신, 협력사 ESG 역량 제고 등 지난 1년간 추진한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아 '2024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기술 혁신’에 집중했다. 기후대응 핵심관리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친환경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일부 친환경 공정 장비도 90% 이상의 고효율로 개선했다.

특히 폐수 재이용 효율을 높여 국내 업계 최상위 수준인 74%의 용수 재이용률을 달성했다. 판매제품에 대한 친환경 평가도 2022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제품 40%에 대해 완료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전자,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 출시

TV 최초 엔비디아 지싱크 인증

LG전자가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를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형 LG 무선 올레드 TV(M4)는 더 강력한 무선 전송 솔루션과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4K 해상도 기준 최대 주사율(초당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개수)이 지난해 120헤르츠(Hz)에서 올해 144Hz로 높아졌다. TV 중 최초로 144Hz 가변

주사율 관련 엔비디아(NVIDIA) 지싱크(G-sync) 인증도 받았다.

무선 전송에 60GHz 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6GHz 이하 대역폭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 와이파이와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 안정적이다.

이번 제품에 적용된 알파11 프로세서는 4배 강력해진 AI 딥러닝 성능을 기반으로 픽셀 단위로 업스케일링 해 더욱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 한편, TV 설치 공간과 콘텐츠 사운드를 분석해 최적화된 공간 사운드를 표현한다. /구남영 기자